

제 9 장

동조와 복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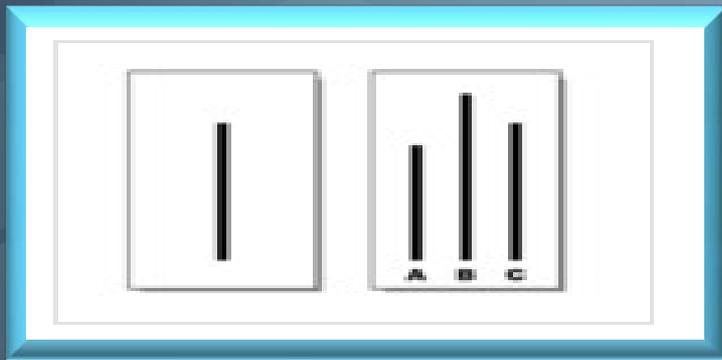
제 1 절 동조

1. Asch의 집단적 사고의 위험
2. Milgram의 연구
3. Field의 연구
4. 스톡홀름 증후군
5. 리마 증후군



1. Asch의 집단적 사고의 위험

- 에쉬는 인간이 독립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는 경향보다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검증하고자 했다.



- 에쉬(Asch)의 선분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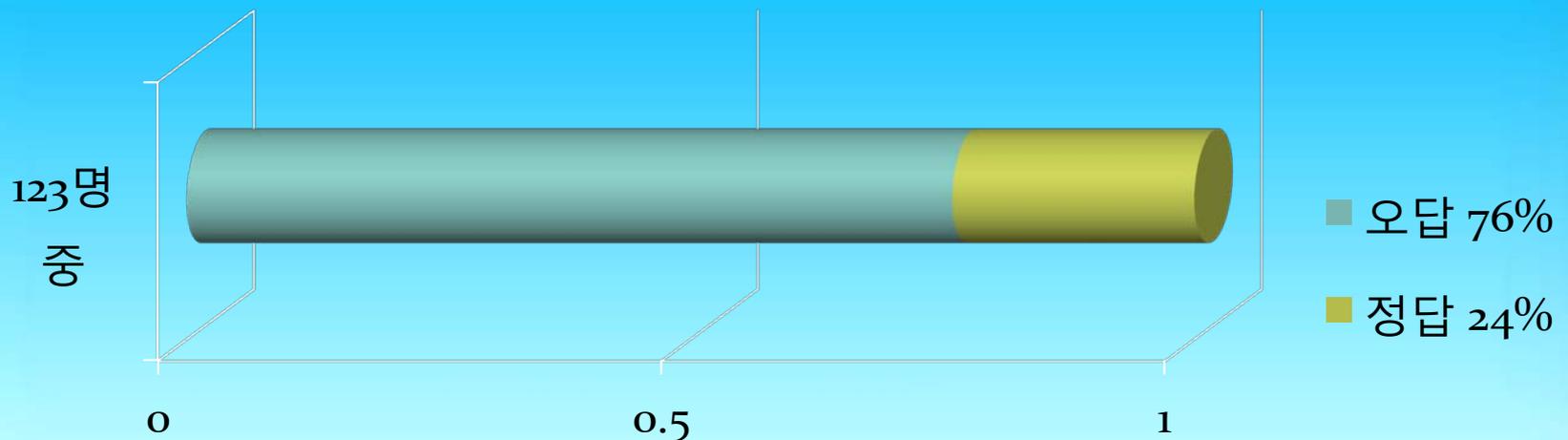
에쉬(Asch)의 선분실험

실험은 실험자가 카드를 보이면서 대답하도록 하는데 10명 중 피실험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실험 협력자이다.

실험이 시작되고 협력자들이 순번에 따라 A번이라는 오답을 했고 끝에서 3번째에 피 실험자가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123명의 피실험자들은 적어도 한번은 오답을 했다.

<실험 결과>



에쉬(Asch)의 선분실험

실험 후 피실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조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되었다.

지각의
왜곡

실험 협력자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지각하고 있다.

판단의
왜곡

의심과 자신감 상실로 자신의 지각이 부정확하고 실험협력자의 판단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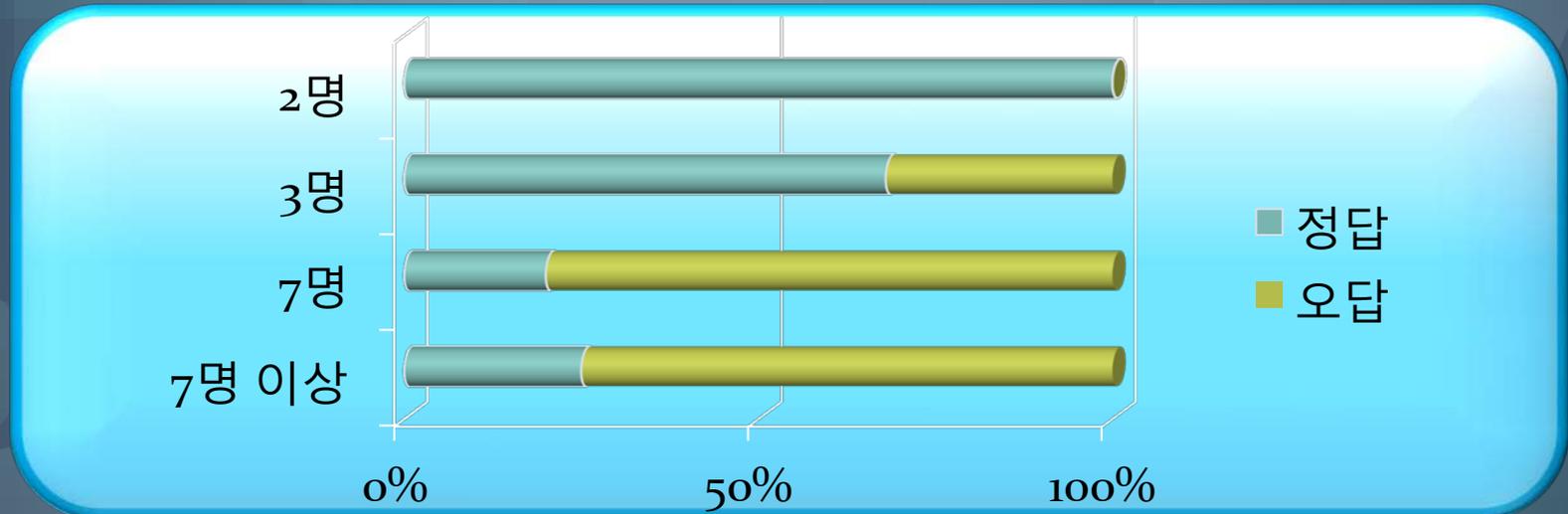
행위의
왜곡

지각도 판단도 왜곡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이 틀릴 경우 이산한 사람으로 보일 것을 우려.

에쉬(Asch)의 선분실험 2

- 동조가 일어난 이유에 대한 실험.

실험대상을 2명에서 16명까지 복수로 시행하였다.



실험협력자가 많을수록 동조는 증가하였지만 7명을 초과할 경우 미약하게나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인원수는 동조의 중요한 요소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에쉬(Asch)의 선분실험 2

- 실험협력자가 1명이라도 정답을 할 때의 상황

실험을 위해 정답자를 두 명 포함하기도 하고 일관되게 정답을 말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실험결과 동의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frac{1}{4}$ 감소하여 한 명이라도 동의자가 있다면 동조의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 지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정답률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동조를 일으키는 원인은 만장일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에쉬(Asch)의 선분실험 3

또한 에쉬는 정답을 말하던 실험협력자가 오답을 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동의자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할 때 대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 동의자 퇴장조건

7회, 8회 째의 오답률은 거의 0%를 기록하였으나 동의자가 돌아오지 않자 9회째에 오답률이 20%증가 하였으며 9회 이후부터는 급증하여 집단압력에 동조하기 시작하였다.

- 동의자 변절조건

7회째부터 10%의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오답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8회까지 지속 된다. 이것은 동조자가 일시적 실수이고 다시 정답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회째까지 일관되게 오답을 하자 결국 집단 압력에 동조하기 시작하여 오답률은 20%로 증가 하였다.

2. Milgram의 연구

- 뉴욕거리에서 실험협력자들에게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도로 맞은편 빌딩 6층을 창문을 1분간 쳐다보게 했다. 실험 결과 실험협력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조행동을 취하는 사람의 수도 80%이상 증가 하였다.
- 이와 같이 인간은 다수가 취하는 행동을 동조하기 쉬우며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동조행위 하고 이에 대한 유발요인은 정보적 영향과 규범적 영향이 있다.

정보적
영향

정보와 확신의 부족이 원인이 되어 동조된다.

규범적
영향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변인들과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사고가 동조를 유도 한다.

3. Field의 연구

-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인들은 히틀러에게 동조해 유대인 박해와 배척운동에 앞장섰다. 이것은 동조의 한 형태로써 본인의 아니게 동조를 하게 되는 심리적 형상으로서 남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불안하여 자신의 생각을 상대의 생각에 동화시키는 것이다.
- 그는 ‘동조심을 일으키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3. Field의 연구

동조심을 일으키기 쉬운 사람

- 복종적이고 유순하다.
- 기호의 범위가 좁고 욕구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 우유부단하며 긴장하면 어쩔 줄 모른다.
- 새로운 것에 적응을 못한다.
- 타인의 평판이나 평가에 민감하다.

동조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 현실적으로 유능한 지도자 급에서 많이 발견.
- 설득력이 강하고, 교섭을 벌일 경우 항상 우위에 있다.
- 임기응변적 적응력이 강하고 활동적이다.
- 정렬적이며 표현력이 뛰어나고 예술적 감각을 추구한다.

4. 스톡홀름 증후군

- 1973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스톡홀름 ‘노르말스토리’의 ‘크레디트반켄’ 은행을 점거하고 은행 직원을 인질로 잡았던 사건에서 유래 했다. 이 사건에서 인질들은 범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가까워 졌고, 6일 동안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에는 인질범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인질들이 범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에게 동조하는 비이성적 현상을 가리키는 심리학적 용어이다.
- 대표적 사례로는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좌익활동을 하던 좌파 도시 게릴라 공생 해방군이 주도한 ‘항공기 납치 사건’을 들 수 있다.

5. 리마 증후군

- 스톡홀름 증후군과 반대로 납치나 인질사건에서 인질범들이 인질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정이입 상태에 까지 이르러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형상을 말한다.
- 1996년 12월 17일 페루 리마의 일본대사관 인질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 이 사건에게 인질범들은 인질들에게 가족과의 안부편지, 미사 개최, 의약품 및 의류 반입 등을 허용하고 자신들의 신상을 털어 놓는 등 이상현상을 보였다.

제 2절 복종

1. Milgram의 전기충격 실험
2. Zimbardo의 교도소 실험



1. 권위에의 복종

- 복종은 동조의 한 양식이다.

순종

개인이 어떤 행위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도록 요구 받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

복종

권위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명령 등의 사회적 압력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이한 행동을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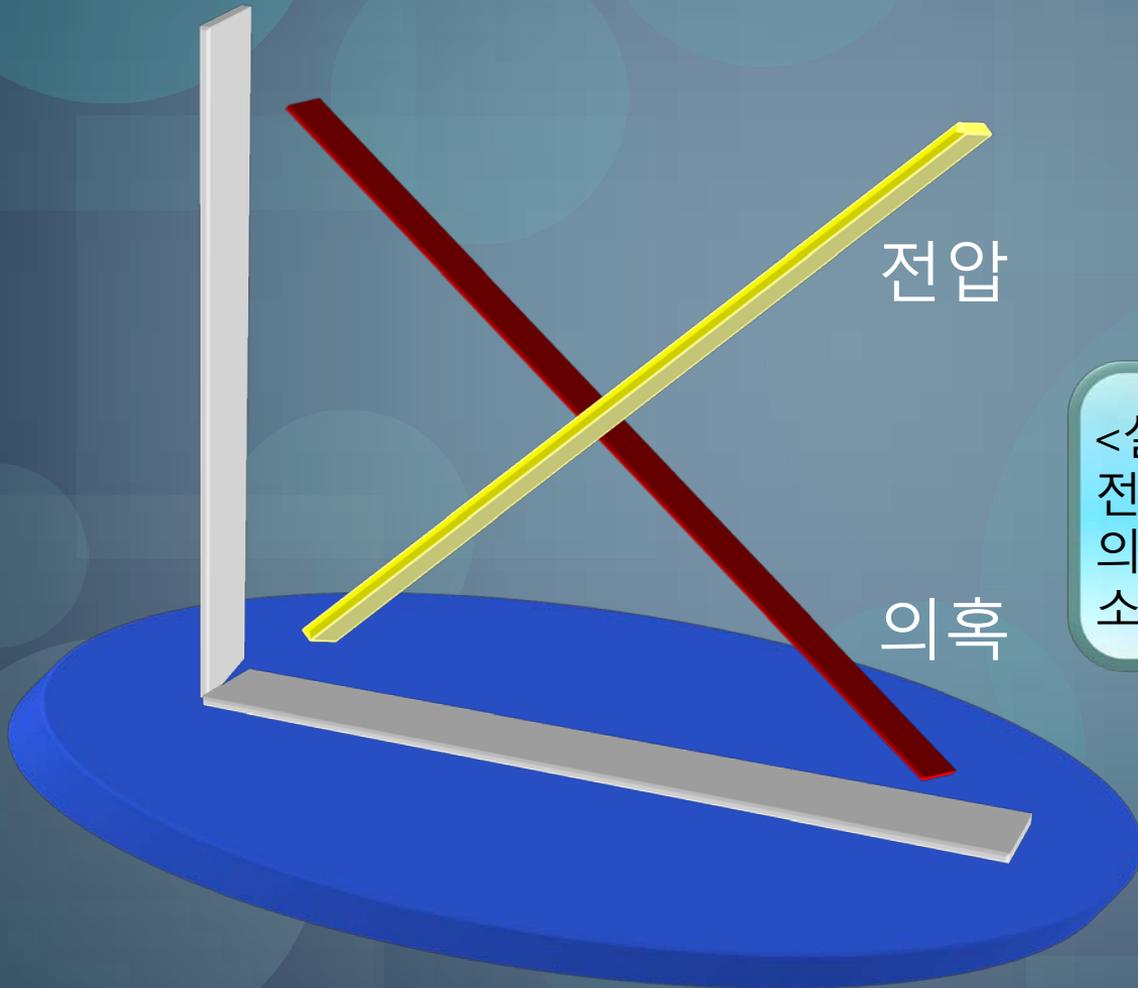
-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전기충격 실험이 *Milgram*에 의해 진행 됐다.

1. Milgram의 전기충격 실험

- 밀그램은 권력을 가진 인물이 평범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은 발휘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명목 상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 지원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선생님의 역할을, 다른 한 그룹에게는 학생을 역할을 부여했다.
- 선생과 학생이 1:1로 짝을 지어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압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선생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연구하였다.
-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 옆에는 실험주관자(권위자)가 격려 내지는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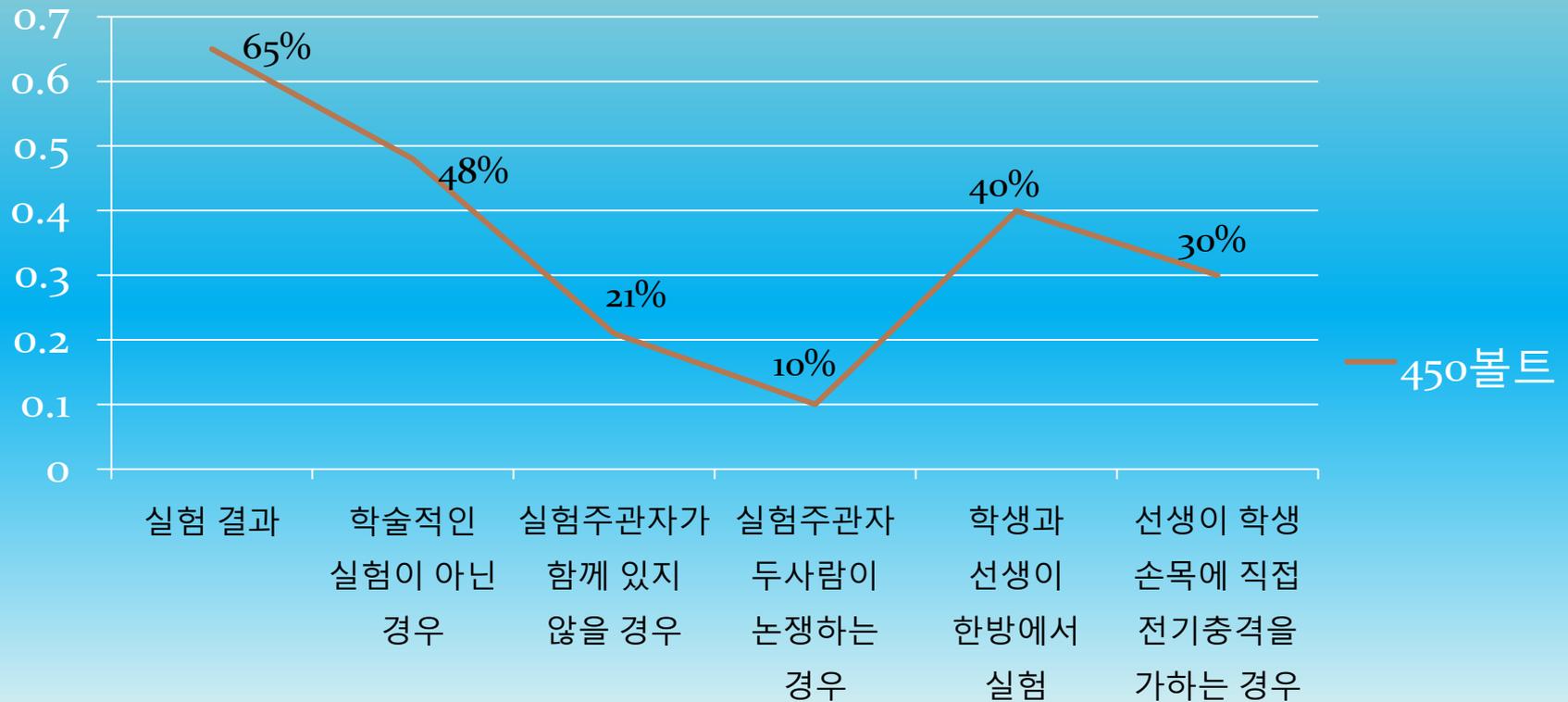
- 처음 15볼트 정도의 전기충격을 가할 때 선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90볼트가 넘어가면서는 약간 의심스러워 했고, 150볼트에 학생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에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 그러자 실험 주관자(권위자)가 선생에게 매우 차가운 목소리로 “괜찮아요. 책임은 내가 집니다” 라고 하자 선생은 실험을 거부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계속 전압을 높여 갔다.
- 300볼트가 넘어가자 그들은 무감각해져서 계속 전압을 높여갔고, 때때로 의혹을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그 빈도는 전압이 높아갈수록 줄어 들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으로 65%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450볼트까지 높인 것이다.





<실험 결과>
전압이 높아갈수록 피실험자는 의혹을 제기하는 빈도 수는 감소하였다.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



Zimbardo의 다른시각에서의 접근

- 스탠포드 심리학자 *Zimbardo*는 이 실험에서 실험 중간에 실험을 포기한 선생들이 이후 어떻게 행동 했는가에 주목하였다.
- 실험주관자나 상급자에 대해 항의나 비난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행히도 그러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 실험을 중간에 거부한 사람조차도 부당한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Zimbardo의 교도소 실험

- 스탠포드 대학생 24여명을 선발해서 감옥상황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간수와 죄수의 역할을 분배 했으며 교도관은 행태를 감시하는 규율이나 기구는 없었다.

둘째 날

역할 담당자들은 진짜 교도관이 된 것처럼 행동 하였다.
죄수는 실제상황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날

교도관은 무력으로 죄수를 완벽하게 통제하였다.
죄수를 독방에 가두거나 구타도 하였다.

다섯째 날

정신적인 충격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목격되어 실험이 중단되었다.

- 이는 인간이 환경의 영향에 취약한 존재임을 증명한 실험으로 인간의 의지로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인간의 행동은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견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3. 인간의 의지력은 극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아니다.

4. 상징물에 대한 의미부여가 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5. 외부와 접촉이 차단되고 고립된 상태에서는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역할의 요소

역할정체성

역할인식

역할갈등

역할기대

역할갈등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해서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